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 ‘병상 단식’에 부결 가능성 대두...부결 시 불구속기소 수순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

인 167석을 차지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송진영 기자



제주의 가을은 색의 향연

## 추석 겨냥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5만원 이상 숙소 3만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행사로, 44개 온라인여행사(OTA)와 3만여개의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를 위해서는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이 별도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겨 조기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발급과 입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동일하다.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로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 객현주 기자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모든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다라도 이번 추석 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 편’이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가짜뉴스도 지나쳐...도어스테핑 중단”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의혹 보도에 “어그로 끌어 인격살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왔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청문회 전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짜뉴스는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

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간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 질의응답을 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짜뉴스도가 지나치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며 “고소나 제소는 하지 않겠으나, 만 건의 허위 단독 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건의 팩트 기반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메모에 적힌 본인에 대한 의혹 사항 10가지 이상을 항목별로 짚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본인이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와 그 지배회사 소셜홀딩스의 감사 자리를 배우자가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해당 언론사는 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언론에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배우자는 소셜뉴스, 소셜홀딩스의 감사를 맡은 적이 없다.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 식으로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해명했다. / 이성준 기자

배우자가 소셜홀딩스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창업 과정과 잘 아는 입장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자산운용 업무를 수탁받은 후 그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신고액이 ‘0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날려 어그로로 트래픽을 끌고 인격 살인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출력해온 신용카드 명세서를 펼쳐 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카드 사용액만 공개한다. 저희는 아주 오랜 기간 자동차가 없어서 도보와 지하철로만 다녔고, 남편은 지하철 공짜 대상자다. 연말 소득공제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된 후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수 건수가 6배가량으로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SNS 뉴스가 자리를 잡아 소셜뉴스 트래픽에 변화가 생겼다(트래픽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지방 행사 담당자가 위키트리를 찾았는데, 바로 회사의 대중 동원력 때문이었다”며 “청결 이후 소셜뉴스 트래픽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9월 28일~10월 1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

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 박소희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OTRA가 응원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해외출장 지원, 투자유치 지원, 수출애로 상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으로 확대”

## 감사원, 통계조작 감사서 파악...“여론 악화 고려해 추가대책 대신 통계 매만져”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당시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한 바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더해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당시 윤성현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에 주중치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 전에 규

제지역을 지정하면 지역 주민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은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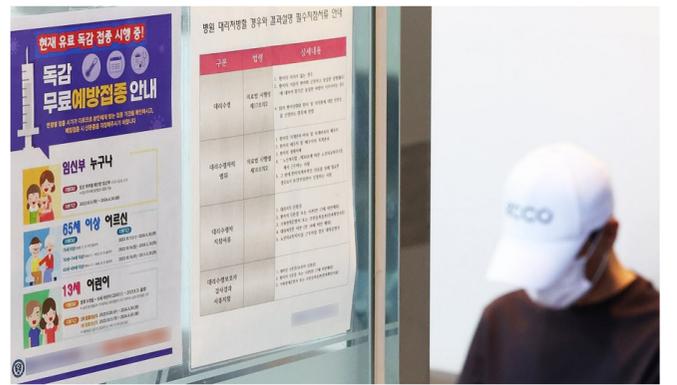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건과 주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부가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킨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시 전셋값 상승 사유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질책했다”며 “11월 2주차에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16%로 나타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속보치 등을 0.14%로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 조작’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 정유찬 기자



## 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어린이·임신부·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 총 1천215만 명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20일 가장 먼저 시작된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사이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달 5일부터는 나머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내달 11일 75세 이상, 16일 70~74세, 19일 65~69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종료일은 모든 대상이 내년 4월 30일까지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 개 지

점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 서나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가져가면 된다.

어린이 중 계란이나 필라시스(특정물질에 대한 신체 과민반응)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유정란 기반 백신이 아닌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 지도 하에 백신을 맞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 절기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권장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4가 백신이 활용된다.

/ 장유진 기자

## 이준석 “김행 공관위원, 유력인사의 추천” 정진석 “추천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게 된 배경을 두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김 후보자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맞춰봐야 한다”며 “저는 안 했고, 나중에 정진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김 후보자

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공관위’의 구성에 무슨 외압이나 간섭이 있었던 식으로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4·7 지방선거와 6·1 지방선거 공천을

저는 사심 없이 했다”며 “당 대표, 위원장보다 센 사람?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고, 당 사무처에서 마련해온 후보군 가운데 제가 한 사람씩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형민 기자

## 野, ‘李단식 비난’ 한동훈에 격앙...“맛 갔다” “잡스럽다”

### “여당 대변인 같아...재승박덕이라는 말도 아깝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난한 것을 두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잡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임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체널A 사건’ 당시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지목됐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채 제출한 점까지 언급, “고위직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하는 게 도리인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 안 풀었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김의겸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더라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은 ‘새디스트’ 같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술 더 떠 “맛이 좀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장관이면 19일만 단식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되나”라며 “지금 하는 것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으로 할 말도 아니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라며 “정말 경망스럽고 재승박덕(재주는 많으나 덕이 부족)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덧붙였다.

/ 차준한 기자

## 김남국, 장애찬에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張 “저열한 행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애찬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뒤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장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결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요?”라며 “민주당의 방관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지수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짜질하다 못해 이런 상책질이 따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 김남국 의원”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캄짜하다”라고도 했다.

/ 홍지민 기자

# 차마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의시, 교목 중에서〉

세상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느 시인과  
그 뜻을 함께했던 어느 기업가처럼요  
국인을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갑니다



# 박광온 “총리 해임건의,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 “尹, 최소한의 남북대화도 시도 안 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 쇄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檢治)”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5주년을 맞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에 출발을 알리는 새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바로 보수 정부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 관한 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종익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이균용 청문회 시작…“법관이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을 법관 재직 중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형했다는 비판에는 “청문회 준비

#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재차 사과…“국민 여러분께 송구”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 논란에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 상당의 처가 운영 회사의 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준홍 기자

# 이동관 “가짜뉴스 공격 대상은 여야 안 가려…법 개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 폐해를 차단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인 방송의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지난 5월 무장단체의 야당 후보 지지 가짜영상과 미국 증시를 출렁이게

한 미국 국방부 건물 가짜 화재 사진 등 해외 가짜뉴스 사례들을 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통·확산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가용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 정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오늘 제안해



이동관 방송위원장

주신 방안들을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윤철 기자

# 신원식 “국방 우주력 강화 시급…우주작전 능력 고도화해야”

## ‘국방우주·미사일전략포럼’ 개최…남세규 전 ADD 소장 “미사일 1만발 확보 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이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공동 주최한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서면 개회사를 통해 국방 우주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방 우주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은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위성과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대비 조기경보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 후보자는 “북한은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며 “압도적 대량응징·타격 능력을 확충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도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우주는 미래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희망과 도전의 무대이고,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영역”이라며 “우주 군사전략 및 자산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육군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주를 기회와 승리의 전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우주영역에서부터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능동적으로 방어하며, 유사시 고위력·고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압도적 거부 방책’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미사일 1만발을 확보하는 ‘일만양탄’(一萬養彈)을 제안했다.

남 전 소장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핵·미사일 전력을 급격하게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KMPR(대량응징보복)을 위해 북핵에 버금가는 압도적 미사일 전력 확보, 즉 일만양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성훈 기자

# 박대출 “文, 2019년 ‘국민과 대화’ 때 조작 통계로 국민 속여”

## “결코 뒤로 숨을 상황 아냐…檢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군사합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쇄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 오윤철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최선을 다한 끝에 시작한 첫 사회생활

바쁘던 일과 독립도 이루어졌지만

낙담하지 않은 월급에 부담이 컸던 학자금대출금

하지만 이런 내 부담을 덜어준

농협은행의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되어준 NH농협은행**

나의 은행 이야기

조용히! 신용회복 지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NH농협은행은 한국정신건강재단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청년 중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대출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신건강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日전문가 “오염수 방류해도 2051년 후쿠시마 원전 폐기 불가능”

##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 “오염수 발생 막아야...핵연료 잔해 반출이 핵심”

일본 원자력발전 전문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이어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께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19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핵연료 잔해(테브리)가 없는 일반 원전도 폐기에 30~40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야노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잘 이뤄진다면 2051년까지 핵연료 잔해 반출 이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먼저 원자로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절단하고 분해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노후화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폐로(廢爐)는 원자로 폐기를 뜻하는 용어다.

일본 정부는 탱크 1천여 기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탱크 부지를 사고 원자로에서 반출한 핵연료 잔해 보관 장소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미야노 위원장은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방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달 7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9천여(톤)이 있으며, 매일 90~100t씩 늘어나고 있다.

그는 “오염수 발생량을 언제 ‘제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며 사고 원자로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야노 위원장은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핵연료 반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연료 잔해도 노심(爐心·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이뤄지는 곳에

남는 것, 콘크리트와 섞인 것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콘크리트와 혼합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제거하면 오염된 분말이 나와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내년 3월 이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 잔해를 몇 g(그램)가량 시험 반출할 계획에 대해서는 “g 단위라도 분석한다면 핵연료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핵연료 잔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완성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와 관련해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학회는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 노승현 기자



지난 8월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 32주년 기념 행진 참가자가 독일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와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타우루스는 안돼”...독일 우크라 지원에 장거리 미사일 빠져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4억유로(약 5천655억원)에 달하는 무기와 원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장거리 미사일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dpa,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폭발성 탄약과 박격포탄 등 추가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전체 규모는 4억유로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이다. 우리는 또한 방호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의류와 발열기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요청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루스'(Taurus)는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정부가 타우루스 제공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

적·법적·군사적·기술적 측면 등 많은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독일 정부는 타우루스 순항미사일을 보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모든 무기 전달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앞둔 때부터 수개월 동안 독일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독일은 타우루스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의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 / 황문현 기자

## 美 “계속 감시”·이란 “우리 것”...한국서 풀린 자금놓고 신경전



한국 내 은행에 4년여간 동결됐다 해제된 거액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한국 정부 모두 18일 약

60억 달러(8조원)에 달하는 이 동결자금이 '중재국' 적인 카타르의 국영 상업은행인 QNB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의 계좌에 이체됐다고 확인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이란 외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동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자산이 신의 가호로 오늘(18일)부터 이란 정부와 국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소유권’을 선언했다.

반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돈의 제한된 사용처를 부각했다.

브릿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은 18일 CNN에 출연해 “이란으로 가는 자금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정 기간 그 돈은 이란으로 향하는 식량, 의약품, 의료기구, 농산품을 공급하는 특정 제3자 유통업체에 지급된다”

## “김정은 방러 수행 최선희도 구찌백...현송월은 중국가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북한 고위직 여성들이 외국 사치품 브랜드의 가방을 든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외국의 고가·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 ‘반사회주의적 행태’라며 단속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층은 여전히 ‘명품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16일 사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든 가방이 이탈리아 고가 브랜드 구찌의 회귀 제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비롭스크주 산업도시 콤포스스크나야무레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최 외무상 등의 모습을 담았다.

이 매체는 최 외무상이 든 가방이 타조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지금은 단종됐지만 아이슬란드의 한 중고품 거래 웹사이트에서 1만달러(약 1천3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K뉴스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김 위원장의 전투기 공장 방문 때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프랑스 고가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검은색 ‘레이디 디올’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수행한 북한 최고위직 여성들

해당 가방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크리스찬 디올 홈페이지에서 7천달러(약 925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다만 수행단 가운데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저렴한 중국제로 보이는 핸드백을 들었으며, 해당 가방은 중국 웹사이트에서 8달러(약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외국의 고가 브랜드 제품을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무기’라고 지목하고 강하게 단속해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사치품 수출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평소 스위스 명품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으며 부인 리

설주와 딸 김주애는 디올 핸드백과 외투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 김 부부장은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불가리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 주민 가운데 1천만명 이상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최고위층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극심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자린 자태-커밍스 호주 디킨대 인도주의 리더십센터 부소장은 “엘리트 계층이 그 나라 일반 시민이 사기 어려운 디자이너 제품을 걸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북한의 경우는) 초엘리트들과 평균적 북한 사람의 삶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원전수출 소송’ 한숨 돌린 한수원...공은 美 정부로

## 美법원 ‘정부 판단할 일’ 정리...한국형 원전 독자성 판단없이 ‘각하’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설치된 신한울 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자 자국 법원에 낸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각하됐다.

한수원으로서 미국 법원에서의 불리한 판결로 체코 등 외국으로의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전 수출 통제권이 전적으로 자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려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당사자인 한수원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 통제 집행권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서 그친다.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하면서 한

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지적권 분쟁에 관한 판단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로 한수원이 미국에서 직면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까지 고려했을 때 차제에 APR1400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해 맞붙을 났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미국 법원 소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지적권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공은 미국 정부로 넘어

갔고, 향후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 4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미국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려했다. 사실상 자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여기는 APR1400의 수출 신고를 ‘미국인’이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 기술이 자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사안의 해결 주체는 미국 정부라고 명확히 ‘교통정리’를 한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APR1400의 수출 신고 문제 해법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는 그간 협상을 통해 원만한 문제를 해결해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미국 법원의 결정이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원 규모의 옐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 이석준 기자

#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도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오는 21~27일 ‘2023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황금녘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캠페인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도 오는 21일부터 참여해 매일 3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7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팸탈을 들고 축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누적 1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

상으로 1등에게 50만원 상당의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 남연우 기자

# 그라비티, 도쿄게임쇼 2023 참가...“신작 게임 14종 출품”



그라비티의 도쿄게임쇼 2023 출품작 14종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는 오는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TGS) 2023’에 참가해 본사 및 해외 지사가 개발한 14종의 게임을 출품한다고 19일 밝혔다.

TGS는 일본 도쿄 지바(千葉)현의 전시장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게임쇼로, 미국의 E3와 독일의 게임스컴에 이어 ‘세계 3대 게임쇼’로 불린다.

그라비티는 오는 20일 열린 액세스(사전 출시)를 앞둔 로그라이크 게임 ‘웨토리(Wetory)’와 지난달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아케이드 게임 ‘스노우 브라더스 2 스페셜’을 선보인다.

아울러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파이널나이트’, 플랫폼퍼 게임 ‘ALTF42’, 방치형 모바일 게임 ‘위드(WITH)’ 등도 관람객들을 맞는다.

그라비티 일본 지사인 ‘그라비티 게임 어라이즈(GGA)’는 내년 출시를 앞둔 신작 ‘사이코데믹: 특수 수사 사건부 X파일’과 RPG ‘카미바코’ 등을, 미국 지사인 ‘그라비티 인터랙티브(GVI)’는 전략 RPG ‘제너레이션 쉼비’를 각각 출품한다.

/ 노승만 기자

# 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웹OS 파트너 서밋 개최

## 30개국 콘텐츠 사업자 등 300여명 대상 스마트TV 플랫폼 소개

LG전자는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자사 스마트 TV 플랫폼·서비스 혁신을 소개하는 ‘웹(web)OS 파트너 서밋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30개국 콘텐츠 사업자와 개발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은 이날 서밋에서 “LG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니다. 다양한 세대에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춘 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개발에 앞장설 방침이다. 2014년 첫선을 보인 웹OS는 전 세계 2억대에 달하는 LG 스마트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타 TV 브랜드와 다른 제품군에도 웹OS를 공급해 2026년까지 웹OS 설치 제품을 3억대로 늘리는 등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TV 외 프로젝트,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 등의 제품군으로도 웹O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TV 플랫폼으로 웹OS를 선택한 타 브랜드는 첫 공급을 시작한 2021년 20여개에서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었다.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웹(web)OS 파트너 서밋 2023’에서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부사장)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마트TV 사용 고객에게 최신 웹OS를 제공해 TV 사용경험을 강화한 ‘플랫폼 업그레이드’도 공개했다. 모바일에서 일반화돼 있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TV OS에서도 동일하게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외부 TV 업체에 공급 중인 웹OS 플랫폼인 ‘웹OS 허브’도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게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인기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LG전자는 또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분야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에도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비스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달 말 출시를 앞둔 새로운 LG채널 3.0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용 채널 가이드를 제공해 콘텐츠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LG채널은 전세계 27개국에 3천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며, 사용자 수는 이미 5천만명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이달 말에는 인도에도 LG채널을 출시한다.

/ 장수경 기자

# GS25, 추석 선물세트 매출 2배 급증

## 역대 최고 수준

편의점 GS25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추석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사전 예약행사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행사 때보다 166.7% 늘었다.

가장 매출이 높았던 것은 10만원대 이

하로 구성된 축산 선물세트였다.

‘투박한우등심팩’, ‘투박한우모듬팩’, ‘소LA갈비세트’ 등 가성비 축산 상품은 사전 예약 기간 매출이 172.9%나 늘었다.

GS25는 선물 용도 외에도 직접 소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을 상시 판매로 전환

하고 추석 이후에도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여행 숙박권과 골드바 등 이색 상품도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골드바 상품은 7억여원 가량 판매됐고 여행 숙박권은 4천만원어치가 팔렸다.

GS25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장에 선 물세트 전용 매대를 구성해 선물 수요에 대응하고 주류와 간편식 등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 민중석 기자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 30년의 동행, 함께라서 더 기대되는 내일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는 30년 동안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각장애인 안내견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멋진 사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만큼 앞으로도 다 함께 걸어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삼성화재

#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학부모 학교 방문, 사전예약해야”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속대응팀도 구성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9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



신규 임용 교(원)장에게 특강 하는 조희연 교육감

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톡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

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예산 3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

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도 포함된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이다.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 송유영 기자



현대차 노조가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 현대차 첫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조합원 58.8%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4만4천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8천603명(투표율 86.47%) 중 2만2천703명(58.81%)이 찬성에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천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

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역시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반도체 부족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파업하지 않았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실적에 맞춘 임금 인상 규모가 가결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올해 7월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일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 광경진 기자

## 충남 아산에도 고속도로 생겼다...아산~천안 고속도로 내일 개통 아산~천안 이동거리 7.9km 감소...주행시간 17분 단축 예상

국토교통부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오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5년 12월 착공해 약 8년간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아산 지역에 처음으로 생기는 고속도로다. 4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져 교통 편의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이동 거리는 7.9km 감소(28.5→20.6km)하고, 주행시간은 17분(29→12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며 발생할 편익은 1년에 1천102억원으로 분석됐다. 차량은 하루 3만8천대가 다닐 것으로 예측됐다. 또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아산~천안 고속도로에 빗물이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 분사 시설을 설치해 빗길 안전을 높이고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 위 장애물이나 정지·이동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했다.

개통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HC 광장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경규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백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당진~아산 구간 등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전역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효주 기자

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아산~천안 고속도로에 빗물이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 분사 시설을 설치해 빗길 안전을 높이고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 위 장애물이나 정지·이동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했다.

개통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HC 광장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경규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백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당진~아산 구간 등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전역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효주 기자

KB금융그룹 | KB국민카드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KB국민카드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파란불'...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 기본계획, 올해 말까지 확정될 듯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19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로 동의(협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기 전에 입지가 타당한지, 계획이 적정한지를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동·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붉은수지뱀드라마·구렁이·대흥란·둔한진총산호·유착나무물산호·해송, 해양보호생물 붉은바다거북·상괘이 등이 서식하는 곳이다.

부지에는 해식애·시스택·해안단구 13곳과 동백군락,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일부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덕도신공항을 만들고 운영할 때 ▲동백군락 이식 등 보전대책 ▲동식물 지속 모니터링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조류 보호구역 관리 방안 ▲지형변화 최소화 대책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666만8천947㎡ 부지에 3천500m 활주로 1본, 계류장 58면을 갖춘 가덕도신공항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개최지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2029년 12월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은 공영수원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더라도 실제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평가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매립으로 해양환경을 파괴해 막대한 어업 손실로 이어지는 사업임이 명백하다", "자연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갖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오문섭 기자

#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 내달 7일부터 오른다

## 지하철 1천250원→1천400원· 시내버스 1천250원→1천500원

인천시는 다음 달 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150원, 2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되며 통합 환승 할인제를 적용받는다.

일반버스 요금의 경우 간선형은 1천250원에서 1천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천200원, 타 시·도행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오른다.

영종행 좌석버스는 1천650원에서 1

천900원으로 오르지만, 영종 시내에서 승·하차할 경우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천650원에서 3천원으로, 광역급행버스(BRT)는 2천200원에서 2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천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도 성인 기준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른다.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기준 운송 적자는 지하철 1천736억원, 버스 2천648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미 기자

# 경북도, 메타버스 규제자유특구 추진...글로벌 중심 도약

## 주력산업 연계 특화, 한류 글로벌 플랫폼 구축

경북도가 메타버스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규제를 혁신하는 메타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메타버스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고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산업안전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농작업 기계 실증연계 플랫폼, 디지털 기술 융합 산업단지물관리 플랫폼 구축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신규 사업을 준비한다. 지난해 수립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담긴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 도시사'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계획 브리핑

기업에 지능형 제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공정, 경영, 유통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와 한류 메타버스 전당을 조성해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류 문화자원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거점을 만들 예정이다.

시대극 촬영지인 문경에는 장소와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 과정도 확대한다.

도는 추가로 지역 대학과 함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만들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 시대 철강과 전자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던 경북이 글로벌 메타버스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박민준 기자

# 한방·향노화 기반 다진다...산청엑스포 '기업인의 날' 행사



산청엑스포 '기업인의 날' 행사 개회

최근 개막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에서 참여 기업 간 소통을 긴밀히 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열렸다.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8일 경남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한방향노화산업관 참여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방·향노화 관련 기업·기관, 바이어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한방·향노화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분야 기업 4개 사와 해외 바이어 간 총 520만 달러 수출협약이 성사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한방·향노화 분야에서 산청이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엑스포 한방향노화산업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한의약 제품 등 한방·건강·뷰티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산업관 입구 오행제품 전시존에는 오행별 관련 제품을 전시해 소비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간을 구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 신지호 기자

# '알록달록 국화꽃 세상'으로 변신한 임실치즈테마공원



내달 치즈축제를 앞둔 전북 임실치즈테마공원이 형형색색의 국화꽃 단장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뽐내고 있다.

오는 10월 6일 개막을 앞둔 '2023 임실치즈축제' 주 행사장인 치즈테마파크는 요즘 형형색색의 국화꽃 단장 작업으로 분주

하다. 올해 3월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된 각양각색의 국화들로 꾸며진 행사장 주요 무대와 국화동산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그간 정성 들여 키운 국화 화분 4만3천여개 중 3만1천여개가 치즈축제장에, 나머지 1만2천여개는 육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전시됐다.

내달 6~9일 열리는 임실치즈축제는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열린다.

심민 군수는 19일 "12만여㎡의 드넓은 초지를 가득 메운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축제장에서 잊지 못할 가을날의 멋진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현정 기자

# 제주해녀 채취 꼬들꼬들 '뽕소라' 맛본 파리지앵

## 제주도, 파리 유네스코 본부서 외교관·시민 대상 시식회



파리 뽕소라 시식 홍보 행사

“파리 시민들이 꼬들꼬들한 제주 뽕소라 맛에 반했어요.”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난 17일(현지 시각) 제주해녀가 생산한 대표 수산물인 뽕소라 시식·홍보 행사가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

었다.

제주도와 제주수산물 수출협회가 공동으로 연 이번 행사에는 유네스코 본부에 상주하는 외교관과 파리지앵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뽕소라 꼬치 시식과 함께 해녀가 직접 소라를 채취하는 영

상이 상영됐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유네스코 헤리티지 데이(UNESCO Heritage days)에 참석하면서 뽕소라 홍보 행사를 열었다. 제주 뽕소라에는 타우린과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등 많은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다. 제주에서는 해녀 3천200여명이 지난해 1천617t의 소라를 잡아 일본 등지로 수출했다. 도는 유럽연합(EU) 국가에도 제주 뽕소라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유럽과 아세안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제주 소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시장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종영 기자

#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하면 안동 아닌 대구에서”



권영진 전 대구 시장이 19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대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경북 안동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동에 출마해달라는 고향 사람들의 요구는 굉장히 크지만, 대구에서 시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동 출마설은 제 생각이 아

니라 소문이나 언론의 예측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에 하나가 국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화국을 해체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 미래를 위해 정치에 나서야 한다면 주저없이 나설 각오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소명을 키우는 중이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출마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손순수 기자

# 광주 금은방털이 공범 10대 1명 추가 검거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금은방 귀금속을 훔치는데 공모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후반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52분께 친구 3명과 공모해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범행 당시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범들이 범행을 마치고 합류해 귀금속을 일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3명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훔쳤다가 40여분만에 3명 모두 붙잡혔고 이중 2명은 구속됐다.

/ 백현준 기자

그리웠던 마음  
보고 싶었던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한 잔의 커피에 담았습니다

**맥심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만드세요**

**Maxim**  
커피라는 행복

# 아시안게임 선수단 본진, 20일 항저우로 출국

1년 연기 끝에 23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0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난다.

최윤 단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20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대인 1천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각 종목 경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20일 출국하는 본진에는 권순우(당진시청)를 비롯한 테니스 대표팀 14명, 사격 대표팀 17명, 하키 대표팀 23명, 스케이트보드 대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단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표팀 7명이 포함됐다.

최윤 단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35명도 이날 함께 떠

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은 5년 전 자카

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식까지는 아직 나흘이 남았지만, 경기 일정은 19일부터 진행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19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에 나선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20일 인도와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벌이며, 근대5종과 조정 등도 20일부터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본진 현지 도착 이후 한국 선수단은 21일 오후 항저우 선수촌 공식 입촌식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 최준용 기자

# 2023-2024 여자프로농구, 11월 5일 개막...우리은행-BNK 격돌



2023-2024시즌 여자프로농구가 11월 5일 개막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1월 5일 오후 2시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리는 아산 우리은행과 부산 BNK의 경기로 2023-2024시즌 여자프로농구가 막을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 최준용 기자

두 팀의 '리턴 매치'로, 당시엔 우리은행이 3연승으로 BNK를 따돌리고 통합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정규리그는 내년 3월 1일까지 6라운드로 팀당 30경기를 치른다. 플레이오프는 내년 3월 9~14일 3전 2승제, 챔피언결정전은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5전 3승제로 이어진다.

경기 시작은 평일 오후 7시, 주말은 오후 6시다.

다만 공식 개막전은 중계방송 편성 관계로 오후 2시에 시작하며, BNK의 주말 홈 경기도 부산 MBC 중계방송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울스타 페스티벌은 내년 1월 6~7일 개최된다. / 심은호 기자

# 레슬링 자유형, '파리 티켓' 걸린 세계선수권서 전원 1회전 탈락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탈락한 송현식(오른쪽)

레슬링 대표팀 남자 자유형 선수들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원 1라운드 탈락했다.

레슬링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콤파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대회 3일째 남자 자유형 65kg급과 97kg급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남자 65kg급에 출전한 윤석기(구로구청)는 우버 무노스(폴로비아)와 1회전에서 2-6으로 패했고, 남자 97kg급 김재강(철곡군청)은 1라운드에서 만난 즈비그니에프 바라노프스키(폴란드)에게 단 한 점

도 얻지 못하며 0-7로 완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남자 자유형에 출전한 10명 모두 1라운드에서 짐을 싸다.

한국은 20일부터 여자 자유형, 남자 그레코로만형에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 대회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체급별 5장씩 걸려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기 위해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선발전 2위 선수를 파견했다.

1위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하고 아시안게임에 나선다.

/ 오지환 기자

# 아시안게임 첫 경기 앞둔 황선홍호의 지상과제는 '평정심 유지' 황선홍 감독은 거듭 평정심 강조...쿠웨이트전 앞둔 선수들 표정 밝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황선홍 감독이 18일 중국 저장성 진화시 아이칭고등학교에서 훈련 중 생각에 잠겨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하루 앞둔 황선홍호에서 가장 강조된 정수는 '평정심'이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여러 층위의 외부 압력을 견디면서 지난 16일 중국 땅을 밟았다.

우선 2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에 우승한 터라 이번엔 꼭 '3연패'를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아울러 아직은 소속팀 일정을 소화 중이라 합류하지 못한 이강인(PSG)의

군 면제가 이번 우승 여부에 걸려 있다는 점도 무겁다.

이강인뿐 아니라 홍현석(헨트),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유럽 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포진한 만큼 전력 면에서도 축구 팬들의 기대가 크다.

우승을 위해 7경기를 내리 잡아야 하는 황선홍호는 19일 오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시작으로 드디어 첫발

을 댄다. 황 감독은 18일 오후 진화의 아이칭고등학교에서 이뤄진 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에게 가장 먼저 평정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경기를 앞둔 소감을 묻자 황 감독은 "부담감보다는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또 인내심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황 감독은 취재진과 인터뷰 말미에도 또 한 번 평정심을 언급했다.

황 감독은 "이제 일곱 발걸음 중에 한

발을 떼는 건데, 그 한 발이 결승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해야 한다"면서도 "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찾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제일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감독의 당부가 통했는지 훈련장에 나타난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마친 선수들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작업을 반복하며 몸을 풀었다. 이어 공 돌리기 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21일 오후에야 팀에 합류하는 만큼 조별리그 초반에는 뛰지 못할 전망이다.

이강인이 없는 황선홍호의 공격을 이끌 선수로는 홍현석과 정우영이 꼽히는 데, 두 선수 모두 이날 훈련에서는 동료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시종 웃음을 보였다. 특히 공 돌리기 훈련 중 정우영이 제대로 패스를 처리하지 못해 멀리 공이 흐르자 짝을 맞춰 몸을 풀던 선수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정우영을 골렘했다.

이에 미스한 표정을 지은 정우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선수 무리로 합류해 계속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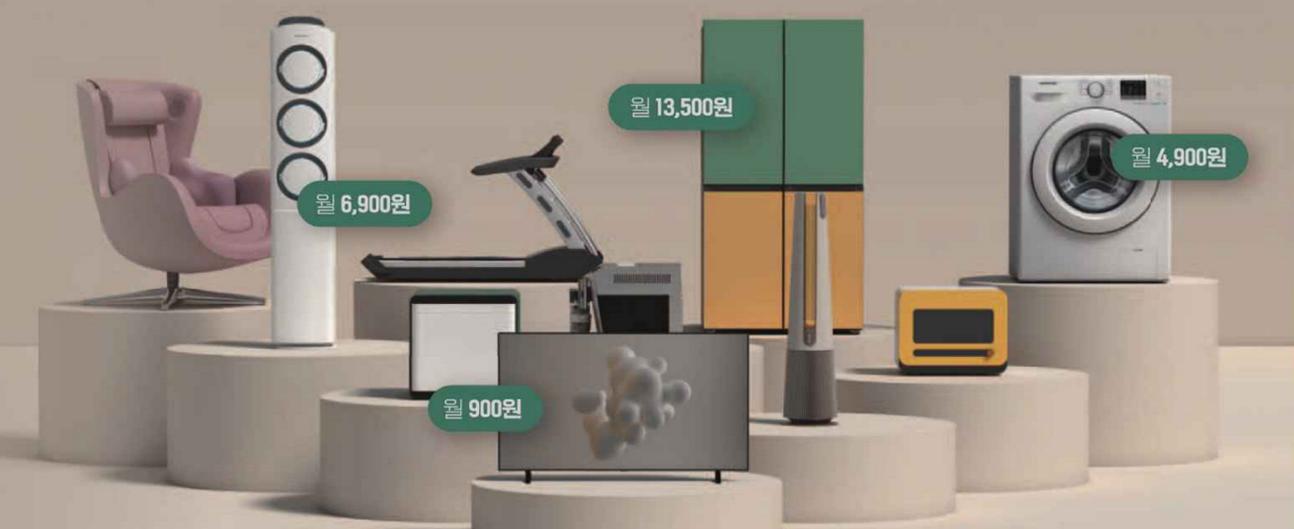
/ 민영준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계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명연기 보여준 선배” 송강호, 故변희봉 추모...봉준호도 빈소에

## ‘괴물’ 박해일·배두나 화환 나란히...취장암 투병·20일 발인

18일 별세한 원로배우 변희봉의 장례식에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영화배우 송강호와 봉준호 감독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



배우 변희봉

송강호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고인의 빈소에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봉 감독 역시 송강호보다 한발 먼저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고인은 생전 ‘플란다스의 개’(2000)와 ‘살인의 추억’(2003) ‘괴물’(2006) ‘옥자’(2017) 등 봉 감독의 영화에 다수 출연

해 열연을 펼쳤다.

봉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고인과 송강호는 자연스럽게 연기 호흡을 맞췄다.

송강호가 형사를 연기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고인이 수사반장 역할이었고, 영화 ‘괴물’에서는 고인과 송강호가 부자(父子)로 만났다.

이런 인연이 있는 송강호는 이날 오후 영화 ‘거미집’ 인터뷰 도중 부고가 전해지자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보여주신 선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인의 빈소에는 영화계 인사들이 조의를 담아 보낸 화환들이 여럿 놓였다.

‘괴물’에서 가족으로 함께 연기했던 송강호와 박해일, 배두나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나란히 자리했고, 배우 전도연, 정보석과 강우석 감독, 박신우 감독 등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유족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취장암이 재발해 투병한 끝에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최근 급격히 병세가 악화했다고 한다.

/ 최현성 기자

#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 사회자에 배우 홍경·고민시



배우 홍경(왼쪽)과 고민시

배우 고민시는 영화 ‘마녀’(2018), ‘봉오동전투’(2019), ‘헤어질 결심’(2022),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2019), ‘스위트홈’(2020), ‘지리산’(2021)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과 평단의 이목을 끌었다.

배우 홍경과 고민시가 내달 열리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폐막식 사회자로 나선다. 폐막식은 내달 13일 오후 6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배우 홍경은 영화 ‘결백’(2019), 드라마 ‘D.P.’(2021), ‘악한영웅 Class 1’(2022), ‘악귀’(2023) 등을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올랐다. 섬세한 연기와 임체적인 캐릭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홍경은 최근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2023)의 목소리 연기에도 참여했다.

그는 누적 관객수 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킨 영화 ‘밀수’(2023)에서 밀수판의 정보봉 육분으로 분해 연기력을 발산했다.

폐막식에서는 레드카펫 행사와 경쟁부문인 뉴 커리츠상을 비롯해 지식상, 올해의 배우상 등 각종 시상식이 이어지고 폐막작 닝hao 감독의 ‘영화의 황제’ 상영으로 올해 영화제의 막을 내린다.

앞서 개막식 사회자에는 배우 이제훈과 박은빈이 선정돼 내달 4일 저녁 영화의전당에서 올해 영화제의 화려한 광파르를 울린다.

/ 김민경 기자

# 예상한 만큼의 스토리와 재미...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

## 강하늘·정소민 주연...이혼 앞두고 기억 잃은 부부 이야기



영화 ‘30일’ 속 한 장면

“뭘 한다고? 결혼? 하지 마. 연애만 해. 아니 연애도 하지 마. 연애하면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변화사 정열(강하늘 분)이 열린 결혼하고 싶다는 후배의 말을 듣고는 손을 내젓는다. 그는 예쁘고 털털한 나라(정소민)를 만나 결혼했지만, 서로에게 신물 나 이혼을 앞둔 상태다.

둘은 법원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30일의 조정 기간에 들어간다. 그러나 함께 차를 타고 오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계획은 틀어진다. 사고로 동시에 기억을 잃은 두 사람이 서로가 누군지는 물론이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는 정열과 나라를 함께 있도록 해 기억을 되살려보려 한다. 그렇게 부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남대중 감독이 연출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운명적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과의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서로를 헐뜯으며 깊어지는 갈등, 그러다 결국 이혼. 하지만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밟는다.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나의 사랑 나의 신부’(2014) 등 여러 한국 영화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뤘다.

익숙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아는 맛

의 무서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군데군데 코믹한 대사와 조연·단역의 통통 튀는 매력도 재미를 준다. 정열과 나라의 어머니 역을 각각 소화한 조민수와 김선영 또한 피식하고 웃음 짓게 한다.

이에 비해 주인공인 정열과 나라의 다소 상투적인 캐릭터다. ‘개천 용’ 정열은 뒤끝이 길고 짜질하다. ‘금수저’ 나라는 괄괄하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신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다. 법정에서도 둘은 과거를 회상하며 서로를 헐뜯는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판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영화는 정열과 나라의 갑갑한 결혼 생활을 비추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다. 사고가 나기까지 약 30분만 이어지는 이들의 싸움을 보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결혼생활의 분량은 짧은 편이다. 그래서 정열과 나라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 또한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뜬 뜬 시간의 상대적으 긴 데다 회상신이 많아 둘의 현재 로맨스에는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10월 3일 개봉. 119분. 12세 이상 관람가. / 노지영 기자

# ‘상습마약’ 유아인, 21일 두번째 구속심사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모레 두 번째 구속감립길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번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병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전날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이석준 기자

# 이순신 3부작 마지막 ‘노랑: 죽음의 바다’ 12월 개봉



‘명량’(2014)과 ‘한산: 용의 출현’(2022)을 잇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 ‘노랑: 죽음의 바다’가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노랑: 죽음의 바다’는 임진왜란 발발 7년째인 1598년 조선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해상에서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를 그린 전쟁 액션 영화다.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에서 최민식과 박해일이 각각 맡은 이순신 장군 역을 이번엔 김윤석이 맡았다. 최민식이 용장(勇將) 이순신을, 박해일이 지장(智將) 이순신을 연기했다면, 김윤식은 현장(賢將) 이순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이번 작품에서 백윤식은 왜장 역을, 정재영은 명나라 장수 역을 맡았다. 허준호, 안보현, 김성규, 이규형, 이무생, 최덕문, 박명훈, 박훈, 문정희 등도 합류했다. / 왕윤호 기자

#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최

주관

# 202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탄소중립, 광명에서 꽃피우다

### 10.6.(금) - 10.8.(일) 광명 새빛공원

# SAMSUNG



세탁기 세척하는데  
구석구석 안닦이면?  
살균소독 안해주면?  
냄새까지 그대로면?  
**걱정이 더 커지기 전에**



## 삼성세탁기 세척은 삼성에게 부탁 **Care+** **삼성케어플러스 | 가전/TV**

삼성 전문 엔지니어의 차별화된 전문 케어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보이지 않는 속까지 제품 분해 |



| 전문 장비로 제품 세척 |



| UV살균 |



|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전문 상담 |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전용 콜센터 상담하기  
**1588-4190**

평일 9시~18시 | 토요일 9시~13시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상담신청 바로가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해보세요!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입니다